Consumer Insight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이메일	jungks@consumerinsight.kr
문의	소비자동향연구소	연락처	02) 6004-7627
배포일	2019 년 10 월 24 일	매수	자료 총 3 매

소비자 체감경제 4 주만에 소폭 반등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

- 10 월 4 주 종합전망지수 79.9 로 전주보다 0.8P 상승

- 긍정적 성향 높은 40 대 남성은 3.3P 떨어져 눈길

10 월 4 주차 소비자체감경기가 전주에 비해 소폭 회복됐다. 9 월 완만한 상승 이후 10 월 들어 연속 하락 4 주만에 나타난 반등이다. 남성보다 여성의 체감경제 호전이 두드러진 반면 40 대 남성은 오히려 부정적 전망이 크게 늘어났다.

소비자조사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24 일 발표한 10 월 4 주(16~22 일 조사) 체감경제 종합전망지수는 79.9 로 전주에 비해 0.8 포인트 상승했다. 9 월에 비해서는 낮지만 6 월 기록한 79.9 수준을 회복했다[그림 1].

■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조짐이 긍정적 영향 준 듯

△국가경제 △개인경제 △소비지출 △경제정책영향 △삶의 질 등 5 개 체감경제 전망지수의 평균인 종합 전망지수는 4 월까지 80 점대였으나 5 월부터 하락해 70 점대(5 월 79.3, 6 월 79.9, 7 월 78.9, 8 월 78.9)를 벗어나지 못했다. 9 월 80.8 로 반등해 최고점을 기록하더니 3 주 연속 하락했고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다른 실물경기 호재는 없었지만 종합경제전망이 4 주만에 반등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감지 영향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 일 삼성디스플레이, 15 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해 친기업 행보를 보였다. 17 일에는 10 개월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이제까지와 달리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이 소비자들의 경제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갈등 요인이 완화될 수 있는 국면전환(10 월 14 일)이 있었다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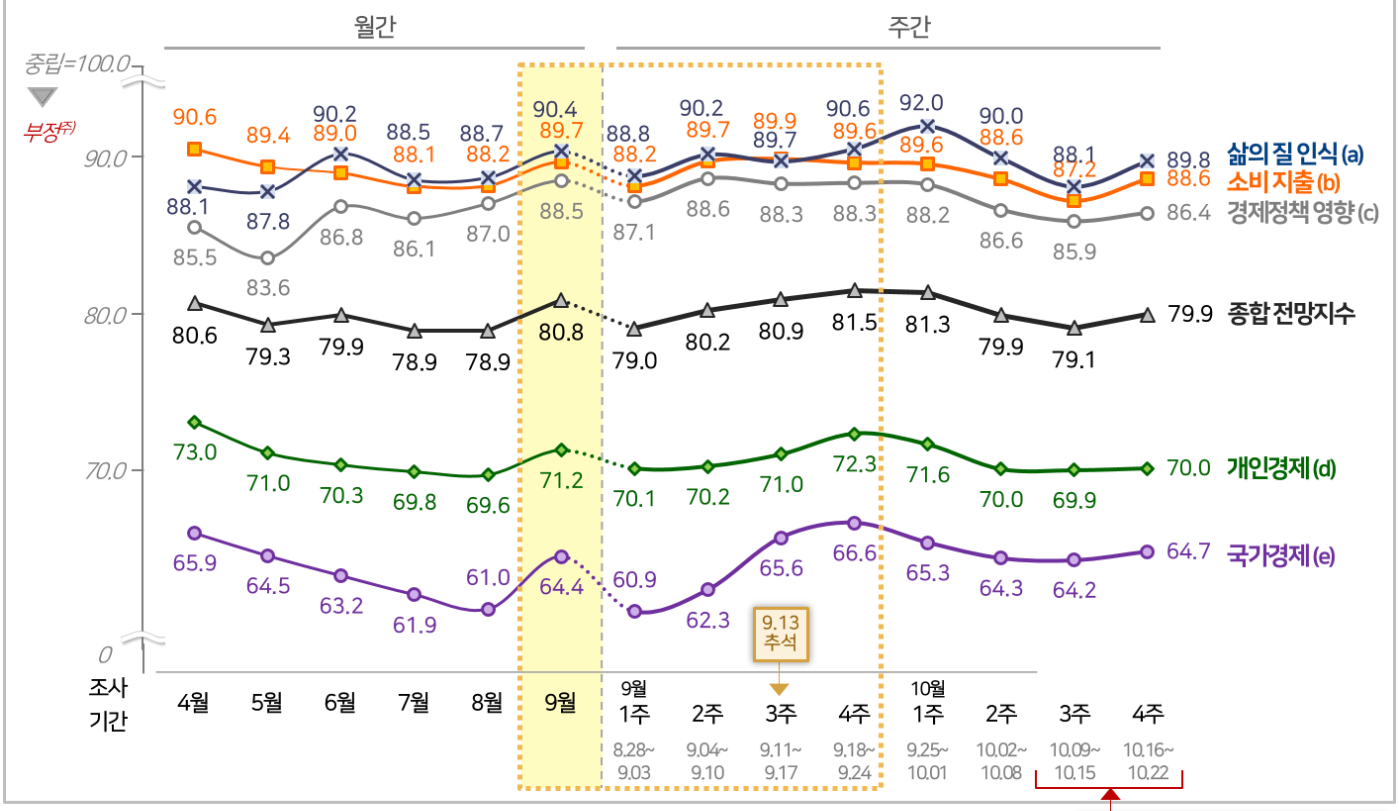
■ 이달 들어 3 주 연속 하락 후 첫 반등

소비자 특성 별로 여성의 전망이 크게 호전(+1.9)돼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남성은 위축(-0.2)됐다. 다만 경제의 주축이라 할 40 대 남성의 부정적 전망이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 대 남성의 종합전망지수는 81.5 로 일주일 사이에 3.3 포인트(P)나 하락해 부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5 개 전망지수 중 소비지출전망을 제외한 4 개 부문에서 모두 지수가 하락했다.

40 대 남성의 체감경기 급랭은 일자리 위기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40 대 고용률이 각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지난 17 일 통계청 발표와 맥락을 같이한다. 40 대 남성의 국가경제전망지수(-3.8P)와 경제정책전망지수(-8.1P)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계와 경제를 버티는 허리층인 40 대의 위기의식은 청년층이나 고령층의 위기보다 한층 심각하다.

[그림1] 향후 6개월 체감경제 전망지수 (2019년 4월~10월 4주)



주) 5점척도를 지수화한 결과이며, 소비 지출은 증가(200점)-감소(0점), 그 외의 항목은 긍정(200점)-부정(0점)으로 평가함.
Q(a) 앞으로 6개월 간 귀하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Q(b) 각 부문의 지출 규모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십니까?
▲내구재 구입비 ▲의류비(신발 포함) ▲외식비 ▲여행비 ▲교육비 ▲의료·보건비 ▲문화·오락·취미비 ▲교통비 및 통신비 ▲주거비
Q(c)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Q(d, e) 앞으로 6개월간 다음의 각 부문들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d 개인경제)▲생활형편 ▲수입 ▲소비지출 여력 ▲저축 여력 ▲부채 규모 (e 국가경제)▲국내경기 ▲일자리 ▲물가

[문대통령 경제관련 주요일정]
10.10 삼성디스플레이 방문
10.14 조국 법무부장관 사표 수리
10.15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방문
10.17 경제장관회의 주재

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기획해 2019 년 1 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매주 1000 명(매달 4000~5000 명)을 대상으로 △국가경제 △개인경제 △소비지출 △경제정책영향 △삶의 질 등 5 개 영역에 대해 조사했다. 전망지수는 향후 6 개월간의 상황에 대한 예상으로 100 보다 크면 낙관적 전망이, 100 보다 작으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이동, 하락은 부정적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No	Title	Date
9	소비자경제전망, 반짝 추석효과 2 주만에 '원위치'	2019-10-17
8	국민들은 '나'보다 '나라 경제'가 더 걱정이다	2019-10-08
7	경제통계 못 믿고, 언론사 여론조사 못 믿는다	2019-09-25
6	영-호남 소비자 경제심리 '지역 격차' 심상찮다	2019-09-18
5	'소상공인'들의 경제정책 평가는? 규모 클수록 "어둡다"	2019-08-20
4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60 대이상 남성' 가장 비관적	2019-08-13
3	불황이라는데..."부동산 투자 권유 늘리겠다"	2019-08-08
2	주거·의료비 줄이는데 여행 지출은 늘린다고?	2019-08-05
1	소비심리 꽁꽁... 여행업→제조업→교육업 연쇄 냉각 우려 '소상공인' 지출 계획이 '무직/퇴직자'만도 못해 최악	2019-07-30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 Tel. 02) 6004-7627, Fax 02) 543-5984 E-mail: jungk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www.invight.co.kr